

## APT '86참관기

尹道永  
(한국데이터통신(주)  
정보통신연구소)

APT(아세아 태평양 전기 통신 협의회)는 아세아 각국의 전기통신업체에 의하여 아세아 지역의 전기 통신 발전을 위하여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지난 1986. 8. 26부터 3일간 태국 방콕에 있는 UN 빌딩에서 열린 데이터통신에 관한 지역 세미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수시로 열릴 수 있는 세미나이다.

이번에 58명(10member, 1 associate member, 4 affiliate member)이 참석하여 23편의 paper가 발표되었는데, 세미나의 내용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자국의 데이터 통신 현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country paper와 다른 하나는 데이터 통신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발표한 technical paper들로서 한국에서는 DACOM의 이거상 부장이 한국의 데이터 통신망 서비스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필자가 PSPDN-Telex interworking에 대한 technical paper를 발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의 데이터통신 분야의 서비스나 기술은 단연 일본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 홍콩(대만, 호주 불참)등을 제외한 그 밖의 나라에서는 초보 단계에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아세아 각국의 데이터 통신의 현재 상태, 문제점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도입 계획 등을 알 수 있어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패킷망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아 인도나 중공 등 곧 패킷망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각국의 패킷망 가입자 형

태, 운영상의 문제, 요금 구조 등을 알 수 있어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아세아 주요 국가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지아는 JTM이라는 회사가 데이터통신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MAYPAC'이라는 패킷망을 1985년 4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TELITA"라는 비디오텍스 서비스를 PS-TN을 통해 시험 운영 중이다. 인도는 패킷교환망으로 'VIKRAM'이라는 이름으로 3개의 노드를 설치 시험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DATAP-AK'이라는 패킷망을 1985년 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특히 홍콩은 FAX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어 전화망을 통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용의 FAX망을 가지고 있다.

E-MAIL 서비스도 DIAL-COM, QUIK-COM, SWIRENET, NOTICE 등 여러개가 서비스가 되고 있고, 비디오텍스 서비스는 1982년부터 PSTN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중공은 데이터 통신망을 회선망으로 할 것인가 패킷망으로 할 것인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패킷망으로 선택하여 1단계로 3개 노드를 설치 운영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표한 paper 중에 KDD의 X. 32 protocol 구현(PSTN을 통한 PSDN access에 대한 protocol)은 DACOM도 서비스할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일본 NEC회사에서 발표한 ISDN에서 패킷망과의 연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paper도 매우 유익하였다고 생각된다.